

## 티에이치엔 (019180)

Company Issue Brief

Mid-Small Cap | 2024.6.18

## 자동차 Wire Harness 생산

| Analyst 정홍식 | hsjeong@ls-sec.co.kr

## 기업개요

티에이치엔은 자동차 Wire Harness(전선, 커넥터, 전원분배장치 등을 가공하여 결속한 물품의 총칭으로 차량 내 각 시스템으로 전기신호와 전력전달 역할)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, 주요 고객사는 현대·기아차(차종: 투싼, 아이오닉6, 펠리세이드, 산타페, GV70 등)이다.

국내 자동차용 하네스 사업을 영위하는 동종 기업은 경신(2023년 Sales 2.5조원, OP 392억원, 비상장), 유라코퍼레이션(2023년 Sales 2.5조원, OP 267억원, 비상장), 그외에 케이티네트웍스(1Q24 Sales 313억원, NI 17억원, 비상장, 한국단자의 100% 자회사)가 있다.

하네스 사업은 복잡한 배선을 모두 연결하여 자동차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보다는 인력이 투입되어 배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이 필요하며(주로 동남아/중국에서 생산), 독립적인 공정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방고객사의 생산 공장에서 협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.

## 실적동향

동사의 매출액은 2020년 3,464억원 → 2021년 4,027억원 → 2022년 4,697억원 → 2023년 5,863억원(CAGR 19.2%), 1Q24 1,429억원(+6.5% yoy)으로 성장하고 있다. 영업이익은 2023년 OPM 7.3%를 기록하였는데, 이는 1)아이오닉6 하네스 신규 생산, 2)전반적인 국내 하네스 기업들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파악된다. 참고로 1Q24 영업이익은 76억원(+30.7% yoy, OPM 5.3%)를 기록하였고, 실적개선 이유는 산타페 풀체인지 효과로 보인다.

## 체크포인트

첫째, 전기차 & 수소차 연관성: 동사는 아이오닉6, NEXO(수소차)의 국내생산 Wire Harness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. 이에 전방 고객사의 향후 전기차 & 수소차 생산 확대에 실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참고로 친환경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장 부품이 많기 때문에 차량당 하네스 공급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다.

둘째, 구리가격: 하네스의 주요 원재료가 구리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구리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이를 고려하면 1분기 대비 2~3분기 OPM은 다소 낮을 가능성도 있다.

Not Rated

|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목표주가         | Not Rated |
| 현재주가         | 3,810 원   |
| 상승여력         | -         |
| KOSPI (6/17) | 2744.1pt  |

## Stock Data

|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90일 일평균거래대금    | 4.28 억원 |
| 외국인 지분율        | 3.3%    |
| 절대수익률(YTD)     | 7.7%    |
| 상대수익률(YTD)     | 3.8%    |
| 배당수익률(23년 DPS) | 1.6%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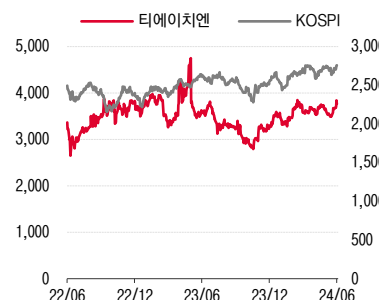
## 재무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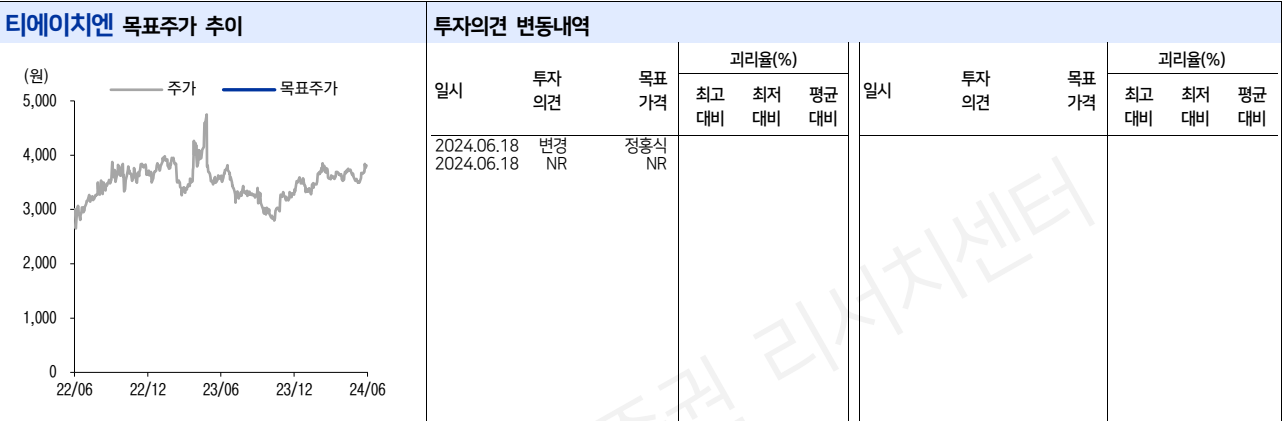
| (십억원)   | 2020  | 2021  | 2022  | 2023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매출액     | 346.4 | 402.7 | 469.7 | 586.3 |
| 영업이익    | 8.9   | 19.8  | 1.1   | 43.1  |
| 순이익     | -16.2 | 17.2  | -4.8  | 28.4  |
| ROE (%) | n/a   | 22.3  | n/a   | 28.7  |
| PER (x) | n/a   | 4.6   | n/a   | 2.2   |
| PBR (x) | 0.7   | 0.9   | 0.7   | 0.6   |

주: K-IFRS 연결 기준

자료: 티에이치엔, LS증권 리차시센터

## Stock Price



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정홍식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| 구분                 | 투자등급 guide line<br>(투자기간 6~12개월) | 투자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기준<br>(향후 12개월)                       | 투자의견 비율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Sector<br>(업종)     | 시가총액 대비<br>업종 비중 기준<br>투자등급 3단계  | Overweight (비중확대)<br>Neutral (중립)<br>Underweight (비중축소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Company<br>(티에이치엔) | 절대수익률 기준<br>투자등급 3단계             | Buy (매수)<br>Hold (보유)<br>Sell (매도)<br>합계                | +15% 이상 기대<br>-15% ~ +15%<br>-15% 이하 기대 | 92.4%<br>7.6%<br>100.0% |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<br>기준 ±15%로 변경<br><br>투자의견 비율은 2023.4.1 ~ 2024.3.31<br>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<br>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<br>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 |